

제1실에 도코노 마(일본식 방에 마련된 바닥을 한 층 높게 만든 공간)와 선반을 두었으며, 제2실, 제3실이 일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면소(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곳)'의 기능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축 후 요시히토 황태자 행차 시에는 수행하는 사무직 관리와 어의가 사용했습니다. 장지문이 모두 운학 문양의 당지(唐紙)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천황이 '운학실'이라 명명했습니다. 제1실의 선반 위의 작은 장지문에 <해변추경도>, 아래의 작은 장지문에 <해변추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둘 다 화가와 제작연대는 미상이나 쓰루사와파의 화풍을 풍기고 있습니다.

스기토에(삼나무 문에 그린 그림)란



야기 기호 <꽃수레 그림>

스기토(삼나무 문)는 2장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복도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운 창호입니다. 혼마루 궁전에는 7쌍 14장의 삼나무 문이 남아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의 건축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삼나무 문의 제작연대 또한 18세기 말에서 막부 말까지 폭넓게 걸쳐져 있습니다. 스기토에를 그린 화가로는 실내 장벽화를 그린 화가들과 나가사와 로슈, 쓰루사와 단신, 고이 유잔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삼나무 문에는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 학, 거북, 봉황과 같은 길상의 동물, 그리고 풀과 꽃, 꽃과 새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 복도에 사용된 대형 삼나무 문은 '꽃수레', '무악(일본 전통 춤과 아악)' 등 황족 가문에 걸맞은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부엌 및 기러기실

21 기러기실(동쪽) 22 기러기실(서쪽) 나카지마 라이쇼(마루야마파)

신하들이 사용하던 방입니다. 기러기실은 이축 때 현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부엌과 합쳐지며 현재와 같은 배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원래는 동쪽 방의 동쪽 벽면에 있던 선반이 서쪽 방의 서쪽 벽면에 옮겨지는 등 벽면의 사양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자르고 붙이고 재구성한 흔적이 장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수묵으로 그린 <갈대와 기러기 그림>은 마루야마파의 실력파 화가 나카지마 라이쇼가 그렸으며, 1854년에 이미 완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갈대와 기러기 그림>

현관

23 접객실 24 현관실 25 사자실

승하차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현관실과 접객실로 이루어진 약 60㎡의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현관실은 원래는 마루였으나 이축 후 복도, 접객실, 사자실과 함께 카펫이 깔렸습니다. 1939년 이후 접객실과 사자실은 원래대로 다시 다다미가 깔렸습니다. 접객실에는 오히라 돈슈의 <파도와 독수리 그림>이 그려진 칸막이가 놓여 있습니다. 요시히토 황태자가 행차했을 때에는 이곳에 큰 시계와 테이블을 놓았고, 꽃꽂이를 한 큰 화병과 분재가 놓였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 승하차장의 지붕은 당파풍(唐破風, 곡선으로 된 지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원래는 나무 지붕이었으나 1909년 동판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관실에서 접객실을 바라본 모습



옛 별궁 니조성 혼마루 궁전



니조성 혼마루(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는 1626년 고미즈노오 천황의 니조성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부지를 확장하면서 지어졌습니다. 원조 혼마루 궁전은 1788년 대규모 화재로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혼마루 궁전은 1884년 니조성이 황실의 별궁이 된 후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1894년 교토 고쇼(천황의 궁궐) 북쪽에 있던 가쓰라노 미야 가문 저택의 주요 부분을 이축하여 만든 건물입니다. 에도시대(1603-1867) 황실 가문의 저택 중 이 정도 규모로 남아 있는 것은 이곳밖에 없으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중요한 방에 '송학실' 등 이름을 붙였고, '정수(呈壽)'라 적은 액자를 2층에 있는 천황이 거처하는 방에 걸게 했습니다. 정원 또한 메이지 천황이 초목의 식재 등을 꼼꼼하게 지시하며 조성했습니다.

메이지시대(1868-1912)에서 다이쇼시대(1912-1926)에 걸쳐 혼마루 궁전은 요시히토 황태자(후의 다이쇼 천황)와 히로히토 황태자(후의 쇼와 천황) 등의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실내는 다다미 위에 카펫이 깔려 있으며, 테이블과 의자 등 서양식 물품이 사용되었고 시대와 함께 샹들리에를 비롯한 조명과 전화 등 근대적 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궁중문화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건물이며, 실내장식의 장벽화(칸막이와 벽에 그린 그림)와 함께 우아한 정취를 자아냅니다.

가쓰라노 미야 가문과 가쓰라노 미야 저택의 역사

가쓰라노 미야 가문은 천황가를 받쳐주던 4대 세습 천황(천황의 남자형제와 왕자) 가문 중 하나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도시히토 친왕(1579-1629)을 초대 수장으로 하는 하치조노 미야 가문이 창설되었고, 9대 다케히토 친왕(1810-1811) 때 가쓰라노 미야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849년 무렵 교토 고쇼의 북쪽에 지어진 가쓰라노 미야 저택은 1854년 교토 고쇼가 불에 타 없어지자 고메이 천황의 임시 거처가 되었고, 가쓰라 고쇼라 불렸습니다. 1860년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가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에게 시집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녀가 에도(지금의 도쿄)로 떠날 때까지 그녀의 거처로 이용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1868-1912)에 접어들자 천황과 화족(華族, 근대 일본의 귀족 계급)은 주거지를 도쿄로 옮깁니다. 11대 스미코 내친왕(1829-1881, 내친왕:천황의 여자형제와 공주)은 교토에 함께 남은 약 45개 화족의 중심적 존재로서 그들을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1881년 스미코 내친왕이 서거하면서 가쓰라노 미야 가문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치조노 미야 도시히토 친왕상 궁내청 소장

관련 연표

	니조성	가쓰라노 미야 저택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도시히토 친왕을 초대 수장으로 하는 하치조노 미야 가문이 창설됨.
1603	도쿠가와 막부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축성.	
1605		막부로부터 받은 교토 고쇼 북쪽의 이마데가와 부지에 저택을 지음.
1626	고미즈노오 천황의 행차를 위해 성을 중수. 부지를 확장하여 혼마루를 짓고 혼마루 궁전을 지음.	
1696		막부로부터 받은 교토 고쇼 북동쪽의 이시아쿠시 부지에 저택을 지음.
1709		몇 해 전 화재로 불에 타 없어진 이시아쿠시 저택을 재건.
1788	교토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혼마루 궁전이 불에 타 없어짐.	교토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이마데가와 저택과 이시아쿠시 저택 모두 불에 타 없어짐.
1795		이시아쿠시 저택을 재건.
1849년 무렵		이마데가와 저택 부지에 가쓰라노 미야 저택을 재건.
1854-1855		교토 고쇼의 화재로 가쓰라노 미야 저택이 고메이 천황의 임시 거처가 됨.
1860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가 가쓰라노 미야 저택에 거주.
1861		가즈노미야,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와 결혼.
1862		고메이 천황의 누나 스미코 내친왕이 11대 수장이 됨.
1866	이즈음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위한 임시 궁전이 혼마루에 지어짐.	
1867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니노마루 궁전에서 막부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을 선언함.	
1868	메이지 천황이 니조성에 행차. 니조성 안에 최고 관청인 태정관대(太政官代)를 둠.	
1871	니노마루 궁전 안에 교토부청(京都府廳)을 둠.	
1872		메이지 천황이 가쓰라노 미야 저택에 첫 행차. 이후 1877년, 1880년에 재차 행차.
1881	이 무렵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임시 궁전 철거가 완료됨.	스미코 내친왕 서거. 가쓰라노 미야 가문 소멸.
1884	황실의 별장, 니조 별궁이 됨.	
1894	교토 고쇼 북쪽의 가쓰라노 미야 저택을 니조 별궁의 혼마루에 이축, 현재의 혼마루 궁전이 됨.	
1895	메이지 천황이 혼마루 궁전에 행차.	
1915	다이쇼 천황 즉위식 때 니조 별궁이 연회장으로 이용됨. 혼마루 궁전은 히로히토 황태자(후의 쇼와 천황)가 사용.	
1939	교토시에 니조 별궁을 하사, 옛 별궁 니조성이 됨.	

이시아쿠시 저택의 어서원(응접실)을 이마데가와 저택 부지에 이축. 그곳에 현관, 어상어전(차소), 부엌 및 기러기실 등을 신축하여 가쓰라노 미야 저택을 완성.



혼마루 궁전 안내도



부엌 및 기러기실

부엌
식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북쪽에는 개수대와 수조가 놓여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

21 22 에 관한 해설은 7페이지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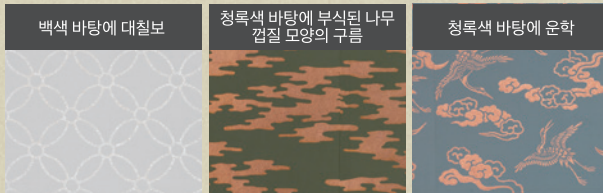
1 처소 출입자 대기실 2 조정 고관 대기실

현관의 각 방은 방문객이 저택 주인을 만나기 전 대기하던 곳입니다. 처소 출입자 대기실과 조정 고관 대기실은 그 이름으로 추측컨대 이축 전 신분이 높은 조정 관계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축 무렵에는 장지문 등에 국화 꽃잎 모양의 당지(唐紙)가 발라져 있었으나 후에 백지를 바르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23~25 에 관한 해설은 7페이지

당지(唐紙)

당지란 문양을 새긴 목판 표면에 호분이 들어간 물감을 발라 찍어낸 종이를 말합니다. 혼마루 궁전의 경우 어서원과 어상어전 곳곳에서 당지를 이용한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백색 혹은 청록색 바탕에 은가루, 황토, 운모를 사용하여 칠보, 학, 구름 등의 문양을 판화로 표현했으며, 방과 복도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서원 복도

어상어전 몸단장실, 대기실 등

어서원 운학실

혼마루 궁전의 장벽화 (칸막이와 벽에 그린 그림)를 그린 사람들

혼마루 궁전에서는 에도시대 후반에 활약한 여러 화파의 장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무로마치시대(1336-1573)부터 이어져온 가노파에 속하는 쓰루사와파와 교 가노, 그리고 마루야마 요코가 설립한 마루야마파, 또 그 영향을 받은 시조파, 기시파, 하라파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 대부분 교토 고쇼의 장벽화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어상어전 송학실

부엌 및 기러기실

14~17 에 관한 해설은 6페이지

18~20 에 관한 해설은 7페이지

어상어전

6~13 에 관한 해설은 5-6페이지

어서원(御書院, 응접실)

3 제3실 4 제2실 5 제1실

어서원의 제1실부터 제3실은 혼마루 궁전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제1실은 다른 방보다 한 단 높고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벽과 도코노 마(일본식 방에 마련된 바닥을 한 층 높게 만든 공간)에 금박을 바르고 지가이다나(높이가 다른 선반)를 설치한 가장 격식이 높은 방입니다. 지가이다나의 작은 장지문에는 하라 자이쇼가 금가루와 물감을 이용하여 실크에 그린 <사계초화와 긴 꼬리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쓰라노 미야 가문에서는 새해맞이 의례 등이 거행되었습니다. 또 이축 후 황태자가 머무는 동안에는 알현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1실에 앉아 있는 황태자를 알현하기 위해 교토의 귀족과 고급 관료, 신을 받들어 모시는 신관, 승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제2실과 제3실을 거쳐갔을 것입니다. 또 제3실은 다다미를 제거하면 일본 전통 예능인 노(能)의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꺾이는 복도가 무대에서 사용되는 '하시카카리(분장실과 무대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가 결혼을 위해 에도(지금의 도쿄)로 가기 직전, 그리고 스미코 내친왕의 조카인 메이지 천황이 행차했을 때 실제로 노 무대로 사용되며 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스미코 내친왕이 메이지 천황을 어서원 복도에서 맞이하였고 메이지 천황은 제1실에서 노를 감상하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하라 자이쇼 <사계초화와 긴 꼬리 새 그림>



어서원 제3실에서 제1실을 바라본 모습

저택 주인의 거실과 침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장벽화는 1862년 스미코 내친왕이 가스쓰라노 미야 가문의 수장으로 취임할 때 새로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6 경작실 나카지마 가요(기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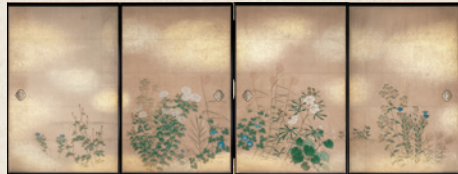
서쪽 면에 봄같이, 싸담그기, 남쪽 면에 여름 모내기, 동쪽 면에 가을의 수확 풍경을 그렸습니다. 벼농사와 농촌의 모습을 그린 '경작도'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계경작도>

7 사계초화실 나카지마 라이쇼(마루야마파)

이축 후 황태자 등의 식사 공간으로 사용된 방입니다. 남쪽 면에 민들레, 유채꽃 등 봄 꽃과 창포, 개연꽃 등 여름 꽃을 그렸고, 동쪽 면에는 참억새, 접시꽃, 국화, 용담 등 가을 꽃, 북쪽 면에는 털머위, 한국, 수선화 등 겨울 꽃을 그렸습니다. 방 전체가 사계의 꽃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사계초화도>

8 송학실 가노 에이가쿠(교 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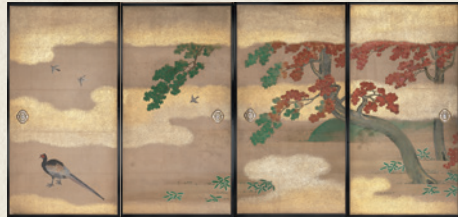
'고자노 마', '고자쇼'라고도 불리는 방으로, 저택의 주인이 머무는 거실입니다. '송학실'이라는 이름은 메이지 천황이 지었습니다. 금가루, 은가루로 구름을 표현했으며, 도코노 마(일본식 방에 마련된 바닥을 한 층 높게 만든 공간)와 장지문에는 소나무와 학이, 선반 아래에는 거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학, 거북은 모두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교 가노의 9대 수장 가노 에이가쿠로, 가노파의 전통이 화려하고 농밀한 화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송학도>

9 꿩실 나가노 스케치카(교 가노)

'고신노 마'라고도 불리는 저택 주인의 침소입니다. 메이지 천황이 '꿩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방의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기장을 치기 위한 금속부품이 남아 있습니다. 방의 정면과 오른쪽에는 단풍나무, 수컷 꿩, 싸리 등 가을 풍경이, 왼쪽 벽면에는 뽕나무, 암컷 꿩, 병아리 등 봄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린 나가노 스케치카는 가노 에이가쿠를 사사했습니다.



<춘추화조도>

10 대기실

저택 주인의 시중을 드는 하인이 대기하던 방으로 추측됩니다. 이축 후 요시히토 황태자가 행차했을 당시 시중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벽과 장지문에는 청록색 바탕에 부식된 나무 껍질 모양의 구름 문양 당지(唐紙)가 사용되었습니다.



대기실

※장벽화가 있는 방은 방 이름 뒤에 화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1 몸단장실

저택 주인, 신분이 높은 여성의 몸단장에 사용된 방으로 추정됩니다. 북쪽에는 선반과 불박이장이 있으며, 몸단장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벽과 장지문에는 대기실과 동일한 청록색 바탕에 부식된 나무 껍질 모양의 구름 문양 당지(唐紙)가 사용되었습니다.



몸단장실

12 싸리실 야기 기호(시조파)

저택 주인 가까이서 시중 들던 자가 사용하던 방으로 보입니다. 만개한 싸리꽃이 방 전체에 그려져 있어 청초하면서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싸리 그림>

13 욕실

저택 주인의 욕실입니다. 다다미가 깔려 있는 곳은 대기하는 공간이고, 한 단 내려간 마루는 가운데를 향하여 살짝 기울어져 있어 배수구를 통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루에 욕조를 놓고 목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서원(御書院, 응접실) 사계절실

춘하추동의 풍경을 그린 4개의 방이 발전자(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봄실의 지가이다나(높이가 다른 선반)의 작은 장지문에 '와카(일본 고유의 시)'의 신이라 불리는 '스미요시 다이샤'가 그려져 있어 이곳에서 와카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봄실과 여름실 사이에는 절만자(畚)를 변형한 고창(문 위에 설치되는 창)이 들어가 있고, 북도와 여름실 사이에는 대마디 모양의 고창이 들어가 있는 보기 드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간세이 시기(1789-1801)로 보이는데 장벽화 대부분은 1863년 이후에 제작되었습니다.

14 여름실 다무라 교슈일 것으로 추측됨(마루야마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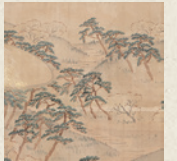
여름 농촌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봄실과의 경계가 되는 장지문 중앙에는 모내기하는 모습과 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쪽 벽면에는 버드나무가 군생하는 물가에서 작은 배를 탄 두 사람이, 겨울실과의 경계에는 뽕나무를 모으는 노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름풍경도>(전체 중 일부)

15 봄실 마루야마 오류(마루야마파)

사계절실의 중심이 되는 방이며, 도코노 마(일본식 방에 마련된 바닥을 한 층 높게 만든 공간)와 지가이다나(높이가 다른 선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루야마 오류가 도코노 마, 벽, 장지문에 꽃이 만개한 산뽕나무와 소나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름을 그렸습니다. 지가이다나의 작은 장지문의 <스미요시 그림>과 <조개 그림>은 간세이 시기(1789-1801)에 일본 전통 회화의 부활을 주장한 '북고 야마토에파'의 다나카 도쓰켄이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봄풍경도>(전체 중 일부)

16 겨울실 호시노 겐스이일 것으로 추측됨(마루야마파)

눈 쌓인 산간 농촌마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 눈과 소나무 등의 녹색, 물가의 남색이 아름다운 대비를 이룹니다. 이를 그린 화가로 추측되는 호시노 겐스이는 마루야마 오류의 제자로, 메이지시대(1868-1912)에 니노마루 궁전 장벽화의 색채 복원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겨울풍경도>(전체 중 일부)

17 가을실 기시 지쿠도(기시파)

가을 산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빨갛게 물든 나무들이 보이고 봄실과의 경계 가운데 부근에 한 쌍의 사슴이 있습니다. 서쪽의 고시쇼지(하단부가 나무로 되어 있는 창호지문)에는 수확이 끝난 논, 벼덕과 벼단을 운반하는 소와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을풍경도>(전체 중 일부)